

나지완, 몸은 가볍게 책임은 무겁게



코치진-선수단, 왕조 재건 구슬땀 마운드, 외인·불펜 호투에 '맑음' 타선, 신예들과 베테랑 격차 고민

맷 감독, 13년차 나지완에 역할 기대 최형우·터커와 클린업 트리오 구성 날렵해진 몸, 수비 움직임 좋아져 "올 성적, 말보다 실력으로 보여줄 것"

나지완이 '호랑이 군단' 화력의 키를 쥐었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인 맷 윌리엄스 감독을 앞세워 '왕조 재건'을 위한 걸음을 내디딘다. 마운드의 기상도는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맑음'이다. 젊은 투수들의 불펜 경쟁이 올 시즌에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고, 애런 브룩스와 드류 가봉으로 새로운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지난 시즌 고전했던 타선에는 올해도 고민이 많다. FA 안치홍을 롯데 자이언츠에 내주면서 확실한 카드 하나를 잃었고, 아직 베테랑들과 신예 선수들의 기량 격차가 크다. 트레이드로 영입한 장영석에게 3루 운명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시즌 팀 홈런 최하위에 그치며 폭발력이 떨어졌던 만큼 한방도 절실하다. 팀 상황을 생각하면 나지완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에 없다. 나지완은 지난 12년 동안 204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기면서 최형우(302개)에 이어 팀 내 통산 홈런 2위다. 순수 타이거즈 역대 홈런 1위인 김성한(207개)을 바짝 쫓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도 나지완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나지완은 '4번 타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최형우와 터커가 나지완의 앞뒤에 배치되면서 최형우-나지완-터커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가 가동되고 있다. 최형우를 시작으로 터커, 나지완은 모두 연습경기에서 홈런포를 날리면서 중심 타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4번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나지완은 외야로 나가 수비 테스트도 받고 있다. 나지완은 좌익수 자리에서 캠프 연습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아쉬운 실책도 기록했지만 눈에 띄게 날렵해진 몸으로 몇 차례 멋진 슬라이딩 캐치를 선보이며 박수도 받았다. A와 B조로 나눠 격일로 연습경기에 선수들을 투입했던 윌리엄스 감독은 두 경기에 연달아 주전 선수들을 내보냈다. 시즌 개막에 맞춰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물론 라인업은 변함없었다. 올 시즌 윌리엄스 감독의 큰 구상에 나지완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지완도 4번 타자라는 책임감으로 타석에 서고 있다. 지난 시즌 자신의 장점이었던 '눈야구'가 실종되면서 부진이 길어졌던 만큼 차분하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흐름은 좋다. 나지완은 "시즌 준비하면서 살을 많이 뺐다. 사람들이 움직임이 달라졌다고 한다"며 "몸도 가볍고 캠프도 즐겁다. 차분하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시즌에 너무 부진했다. 마음만 급했던 것 같다. 올해는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몸은 가벼워졌지만 책임감은 더 커졌다. 날렵해진 나지완이 KIA 타선에 힘을 더해줄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MVP 이청용·영플레이어 조규성

프로축구연맹 '2020시즌 K리그1' 모의투표 결과 발표

'미리 보는 2020시즌 K리그1' 모의투표에서 울산 이청용과 전북 조규성이 각각 MVP와 영플레이어 주인공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K리그1 12개 구단 감독과 주장 그리고 미디어가 참여하는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각 구단이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실제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11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이청용이 '미리 보는 MVP'에 뽑혔다. '미리 보는 영플레이어'는 조규성의 차지가 됐다. 이청용은 미디어 최다득표(54표 중 28표)를 받아 최종점수 33.24점을 기록했다. 감독들로부터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대구 세정야가 28.89점, 주장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4표를 획득한 전북 김보경이 23.4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청용은 "개인 타이틀보다는 팀의 우승이 목표다. 새로운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다. 완벽한 적응, 그리고 새로운 동료들과의 호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규성은 감독 9표, 주장 6표, 미디어 33표로 합산점수 61.94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가 됐다. 상주 오세훈이 18.15점으로 2위, 포항 송민규가 12.22점으로 3위에 올랐다.



이청용 조규성
조규성은 "많은 관심에 감사하다.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실제 영플레이어상 수상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리 보는 시상식에서 MVP와 영플레이어에 뽑힌 이청용과 조규성이 연말 시상식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체면 구긴 디펜딩챔프 리버풀

챔스리그 8강 탈락...2연패·홈 무패행진 25경기서 무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극강' 리버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에 일격을 맞고 유럽 왕좌에서 예상보다 일찍 내려왔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디펜딩챔피언' 리버풀은 12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AT마드리드와의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연장전에만 3골을 내주고 2-3으로 졌다.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0-1로 졌던 리버풀은 이로써 1-2차전 합계 2-4로 8강 진출이 무산됐다. UEFA 챔피언스리그 2연패에 도전했던 리버풀의 유럽축구대항전 홈 무패 행진도 25경기(18승7무)에서 끝났다. AT마드리드는 이날까지 잉글랜드 팀과의 최근 5차례 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을 썼다. 리버풀은 전반 43분 알렉스 옥슬레이트-체임벌린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조르지니오 베이날둠이 헤더로, 1-2차전 합계 1-1을 만들며 승부를 연장전으

로 끌고 갔다. 연장 전반 4분에는 베이날둠의 대각선 크로스에 문전으로 쇄도하던 피르미누가 머리를 갖다 대 1-2차전 합계 2-1을 만들었다. 리버풀의 역전 8강행이 눈앞까지 온 듯 했지만, AT마드리드는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전 디에고 코스타 대신 교체 투입된 마르코스 요렌테가 대역전극의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요렌테는 연장 전반 7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기습적인 중거리 슈트로 추격골을 넣었다. 요렌테는 연장 전반 추가 시간에도 역습 상황에서 중거리 슈트로 리버풀 골대를 갈라 1-2차전 합계 3-2로 역전을 만들었다. 리버풀은 디보크 오리기와 파비뉴, 미나미노 다쿠미를 연달아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AT마드리드 수문장 안 오블락의 '선방쇼'에 가로막혔고, 오히려 썩기 골까지 얻어맞았다. AT마드리드의 알바라 모라타는 연장 후반 추가시간 왼발 슈팅으로 대역전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광주 FC 유니폼 함께 만들어요"

10주년 기념 내달 1일까지 디자인 공모...전용구장 첫 경기서 착용

광주FC 선수들이 전용구장 개장 경기에서 팬들이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고 뛴다. 광주가 12일 "장단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단 10주년을 맞은 광주의 슬로건인 'COME TOGETHER(같이 모이다, 힘을 합하다)'의 의미를 담아 '내가 입고 싶은, 우리 팀이 입고 싶은 개성 있고 특별한 유니폼을 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을 통해 제작되는 10주년 기념 유니폼은 광주 축구전용경기장 경기 이벤트로 선보이게 된다. 이날 선수들은 팬들이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게 된다.

개장 경기는 6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디자인 공모 기간은 내달 1일 정오까지다. 광주를 사랑하는 팬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 구단 공식 홈페이지(gwangjufc.com)를 통해 유니폼 디자인 파일(JPG, PSD, AI 등 선택) 및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선수단 친필 사인 공인구와 기념 유니폼(상의)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기념 유니폼(상의)과 10만원 상당의 MD상품,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20시즌 광주FC 시즌권(2매)이 증정된다. 광주 관계자는 "장단 10주년을 맞은 광주는 클럽하우스의 광주 이전,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1부리그 승격 등 겹경사를 맞고 있다"며 "슬로건인 'COME TOGETHER'의 의미처럼 팬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